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을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  
 현순덕(여, 1932년생, 성산을 오조리)

• 줄거리: 버스 정류장에서 돌아다니는 도깨비 불을 본 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]** 생선장사 할 때, 택시가 잇이카 버스로 이제 일찍 측항에 오면, 고기 반앙, 어덜  
 가느네 허민, 이제 막차로 가젠 짐수막이렌 헐디, 차부 흐쓸 가까운 디로 일로  
 이디, 조곰 올라가민, 거기 가당 보면, 아닌 게 아니라 도체비가 신고쪽으로 무  
 시거 사발만헌 게, 퍼떡퍼떡 그 초스름에 놀아와. 우린 막차로만 덩기난,

이제 그놈이 어떻허느네 허민, 이제 그 동산잇잡여, 요디 저 짐수막 그 소낭빳  
 그디 오랑, 낭푼만헌 게 하나 잇다그네, 파지직 착 허민 그게 그자 별굴이 싹허  
 게 멧 개로 갈라져.

벌릉벌릉허멍 요디 경남이 어멍은 그 작산 나보다, 한 일곱나 우에 할머니가,  
 우린 그냥 짱짱허고 그 할망이 사름이 고기집 지영 간, 그 구덕 예염에 산 날  
 심영

“아이고 야야. 경남이 어멍아. 어떻 허민 좋으네. 저 도체비.”

“도체빈 놀아놔 벳수게. 무시거 원.”

성님네가 이디 경자 어멍허고 아 그 두 어른이 나보다 겁을 내네게. 경 현 겁난다고.

- 핵심어 : 짐수막, 도체비, 동산, 소낭빳, 별, 차부, 정류장, 도깨비